

The Status of 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Inroads Strategies of Foreign Construction Companies

- Beom-Yong SUNG (Japan, Vice President, Takenaka Europe GmbH) -

[요약,정리] 김병수, 국립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U현황과 진입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글에는 유럽건설시장에서의 경제상황이나 새로운 경향 등과 같은 EU의 개관과 함께 잠재적인 미래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커뮤니티의 촉진과 세계 각 지역에서의 건설시공과 관리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거대한 하나의 국가와 같은 EU를 단일시장으로 보고 시장장벽의 제거와 EU펀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이 확정된 중부 및 동부유럽국가들의 가세로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을 갖게 된 EU25의 시장환경과 건설산업동향을 보여준다.

I. EU시장 개관

1.1 단일시장으로의 발전

-EU가입의 실행 및 확장

유럽공동체는 원래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이후 19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하였고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새로이 가입하였으며, 1990년에 동독이 가입하였다. 1992년 회원국들은 EU (European Union)를 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EU는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가입시켰다.

이렇게 하여 1952년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1995년 15개국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북극권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와 아일랜드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인구 370백만명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

그들의 목적은 다함께 협력함으로써 민주주의, 평화, 번영과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들간의 무역에서 남아있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진실로 국경없는 유럽을 만든 이후, EU회원국들은 오늘날의 주요 경제적, 사회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용화폐를 만들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세계에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주요지표의 국제비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말타, 씨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새로운 10개 회원국의 가입으로 EU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직으로 될 것이다. 새로운 EU에 가입한 10개국의 영향은 EU15와 비교되며 EU25는 미국에 필적할 것이다.

EU25와 EU15를 비교하면 인구가 거의 20% 증가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다같이 2.0%(2003년기준)이며, 실업율이 1% 더 높다. 또한 시간당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EU15와 EU25 모두 자동차, 약, 통신기기가 주요 수출품목이다. 모바일폰의 사용을 제외한 자동차와 PC 그리고 인터넷을 미국이 EU25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1.2 유럽건설산업의 개요

-건설산업의 개관

유럽에서의 건설부문은 전략적으로 빌딩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공급하므로 중요하다. 건설부문에 11.8백만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으므로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고용주인 셈이다. 즉 이것은 EU15에서 산업의 28%를 그리고 전체고용인원의 7%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EU15에서 26백만명의 작업자들이 건설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03년에 약 910억유로(약 110조7천억원)가 건설에 투자되었으며, 이것은 EU15에서 총고정자본형식(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은 새로운 회원국에게 있어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2003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의 매출액은 38억 유로(약 4조6천억원)였으며, 시장은 매년 평균 4.2%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내형

2003년, EU에서의 건설활동은 약 11.7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것은 총고용의 7%를 조금 상회한다. 독일은 EU 전체 건설활동의 23%를 책임지고 있다. 1999년이래로 EU에서의 건설활동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영국이 3.7%, 스페인이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독일은 -3.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포르투갈도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가간의 다양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2003년 특별히 영향을 미친것은 민간 비주거빌딩의 -4.1%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회원국의 경우,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주거빌딩 부분의 활동레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주원인은 대부분이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투자의 감소로 볼 수 있다.

II. EU단일건설산업을 위한 로드맵과 기구

2.1 정부기구

-표준기술코드

목적 :

- 유럽표준으로서의 공통설계방법을 마련
- 빌딩과 토목공사 작업의 타당성을 증명
- 구조요소의 실행을 결정

이득 :

- 구조, 안정성, 내구성 등을 위한 시방조건을 이행하는 공통기준을 마련
- 건설의 모든 부분을 위한 공통협정을 마련
- 회원국들간의 건설서비스의 교환을 촉진
- 회원국들간의 자재의 교환과 매매를 촉진
- 건설부분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통기초가 된다.
- 경쟁력의 향상

-제거되는 시장장벽

EU내에서의 시장장벽 제거는 유일한 자산으로서 단일시장을 창조한다. 어떤 유럽 노동자들이라도 자유롭게 EU내로 들어갈 수 있고 각 유럽국가들의 별도의 허가없이 일할 수 있다.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준 EU코드에 가입한 어떤 회사라도 모든 생산요소(제품, 서비스, 재정, 인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2 재정기구

- EU펀드의 이용

ERDF(유럽지역개발펀드)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a) 목적 : 모든 구조적 펀드의 목적은 공동체내의 지역간의 사회경제적인 개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2000년~2006년에 걸쳐 ERDF는 지역내에서 경쟁력촉진을 위해 애쓸 것이다.
- b) 활동형태: ERDF는 기반시설과 중소기업의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다.
- c) 수익조직 : 공공과 민간조직은 ERDF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 조직들은 ERDF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에서 창출된 프로젝트를 위한 요청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지정 한다.
- d) 자격 : ERDF로부터 국가펀드프로젝트가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당국에게 위임받은 위원회로부터 채택된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 절차 : 각 프로그램에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당국은 프로젝트의 선택권한이 있다. 그들은 또한 프로그램을 위한 유용한 펀드에 접근하는 방법 같은 정보를 전파한다.
- f) 사회기여의 모습 : 공동투자(co-financing)방식
- g) 사회기여의 수준 : 일반적으로 사회기여는 투자완료된 지역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공동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수입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 h)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 어떤 지역이 1994년~2006년 기간동안 ERDF에 의해 공동투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다면, 2000년~2006년 기간동안 구조적펀드의 몇가지 목적으로 다시 한번 적절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 i) 예산라인 : ERDF(유럽지역개발펀드)
- j) 총예산 : 2000년~2006년 구조적펀드는 1,950억 유로(약 237조원)
- k) 펀딩을 위한 법률기초 : EC자문규정 No. 1260/1999(1999.6.21)은 구조펀드의회(SFP)에 하부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며, ERDF에 No. 1783/1999(1999.6.21) 규정을 두고 있다.
- l) 정보의 커뮤니티 출처 : ERDF에 의한 모든 공동투자 프로

그럼은 지역정책을 위한 DG가 메일리스트상의 5만명 이상에게 7개 국어로 보내는 뉴스레터에 게재된다. 이 월간 뉴스레터에 대한 구독료는 무료이며,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으며, e-mail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메일수신도 가능하다.

그런 변화는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미 전면적인 이동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인접국들로 생산을 이동시키거나 시장점유를 추구하고 있다.

III. CEEC 시장의 확장 및 경쟁환경

3.1 CEEC(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시장의 성격

-사업환경

EU15의 현재인구는 380백만명이며 미국의 1.3배 규모의 시장이다. EU의 최근확장으로 EU25인구는 10개의 새로운 중앙유럽(CE), 발틱, 지중해국가를 둘러싼 인구는 445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EU25는 이제 북아메리카보다 더 큰 시장을 보유하고 됐다.

이러한 성장예상은 이미 2003년 평균3.6%의 성장을 기록한 그들의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을 유발시켜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4%)과 2005년(4.2%)에 더 증가하였고, EU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투자에 대한 예상된 성장, 특히 기반시설, 그리고 거대한 EU펀드의 유용성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새로운 EU회원국들에 있어서 개선된 사업환경은 이미 정부가 기술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체코와 헝가리와 같이연구개발부문과 고기술제품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발시킬 것이다.

새로운 회원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EU내에서 저가제품센터가 될 것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5년동안 EU회원국으로 있어 왔으며, 독일보다 여전히 저임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새로운 회원국들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회와 장구처럼 될 것이다.

-외국직접투자

동부유럽에 대한 연간투자흐름은 1996년 이후 2000년에 22억 유로(약 2조6천억원)까지 두배 이상 증가해 왔다.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에서의 고정투자의 20%, GDP의 4~5% 이상을 외국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EU 진입은 지속적인 외국투자를 보증 할 것이다.

- 거시경제의 안정과 정치수준의 보장으로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
- 다른 EU국가들과 유사한 사업환경을 만들고 나머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거래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 450백만명의 시장이 확보되고 특정제품지역의 잠재력을 변화시킬 것이다.

3.2 유럽과 국제경쟁

-건설산업의 트렌드

PMR 컨설팅/분석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에 걸쳐 중앙 및 동유럽국가들(CEES)의 건설시장은 연간 8~10%의 인상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PMR에 따르면 향후 수 년 안에 토목공사의 개발과 같은 요인으로 CEEC건설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토목공사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새 EU 회원국에서 역동적이며 특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도로 및 철도의 현대화 및 건설과 같은 토목공사분야에 대부분이 배정될 EU펀드의 유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 부족한 도로기반시설, 현대화된 철도시설의 부재와 낮은 도로품질은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전 CEEC지역에 건설부문의 성장을 등에 업고 토목공사의 기회를 만드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유럽과 국제 마켓쉐어

- 특히 제품생산공장을 위한 외국직접투자를 급속히 늘리게 된다.
- 원 지역건설업체들은 건설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을 것이다.
- 서부유럽과 일본건설회사들은 시장으로 진입해 왔으며,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지역건설회사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V. 결론

종합적인 결론은 서부유럽과 국제적인 공장들이 CEE내에 저생산비를 찾아 그들의 생산량을 동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로운 EU회원국가들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CEE의 건설산업은 지역 CEE시장에서 현재의 요구에 무력감을 인식하고 있다. 주요 유럽건설사들에게 지역 CEE 시장에 새로운 사업조직의 창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회 덕분에 국제건설회사들이 그들의 부가적인 가치와 함께 모든 전문기술들을 시장에 팔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규모의 건설공사와 관리를 위해 향후 의사결정에 길잡이로서 이 보고서가 사용되길 바란다.